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김현진 · 이은숙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Th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Using a Maximalism Character

Hyun-Jin Kim and Eun-Sook,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bstract : Maximalism is the code which has a power to interpret a fashion phenomenon expressed complexly and variousl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maximalism which reappeared is not the expression by a method only. It is presenting the experimental design for the new pursuit through the mixture such as expansion, splendor, variety, decoration, distortion of configuration or transformation, and composi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by four types(expansion, decoration, mixture, non-structure) materializing a feature of maximalism express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ollection works from 2005 to 201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Expansion: It was showed artificial, formative, unique, and odd feature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upper half of the body, the lower half of the body, and both of them. 2. Decoration: It was showed the actual decoration considering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and the decoration emphasizing abstract and unique character and featuring domination and emphasis. 3. Mixture: It was showed through the mixture of the contrary textiles or the different sex image. 4. Non-structure: It showed the non-structure of the avant-garde trend and non-structure through decoration, detail, adjustment direction of a dress.

Key words: Maximalism, Expansion, Decoration, Mixture, Non-structure

1.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러 인종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다양한 예술양식과 문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나 트렌드를 하나의 양식으로 논하기 어렵다. 현대패션 역시 정치, 문화, 종교, 가치관, 예술 등을 반영하여 여러 요소들이 혼재된 가시적 표현물로서, 고정 관념화된 시대적 관점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다분화된 집단들이 추구하는 패션경향을 세분화시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들 간 또는 하위집단 내에서조차도 패션의 획일성보다는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로의 지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타일이나 이미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움을 항상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또 다른 패션 트렌드의 탄생을 부추기고 있어 오늘날의 패션은 '이것이 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1세기 부각되는 극대지향, 최대지향을 표방하는 맥시멀리즘은 하나의 방법을 이용한 표현보다는 과장성, 화려함, 다양성, 장식성, 형태의 왜곡이나 변형, 합성, 탈권위적 표현성 등의 혼합을 통한 다른 새로움 추구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써 맥시멀리즘은 처음에는 장식을 최대화하고 여러 요소들의 조화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된 디자인적 특징이 나타났다. 2005년 이후부터는 고정관념적인 미의 기준을 거부하는 해체주의 표현에 활용된 부가법이나 반대법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면을 강조하거나 옷의 제작과정을 노출시키거나 의상 자체를 해체시키고 다시 상상에 의해 조합시킴으로써 기존의 표현방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용한 극대성, 최대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이는 개별적 표현양식보다는 이에 또 다른 측면이 첨가되는 여러 예술사조간의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수정 보완적 관계를 표현하는 집합적 양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맥시멀리즘은 외형상 하나로 통합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특성이 혼재된 형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요소들로 조합되어 있어 이를 특징지어주는 복합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며, 유형화된 기준을 토대로 패션 디자이너 작품에서 비쳐지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표현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맥시멀리즘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김호정(2005)의 맥시멀리즘의 조형특성인 복식확대 과장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명은정(2005)의 Mix&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과 유형을 분석하여 현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한 연구, 김정연(2006)의 문학, 예술, 패션에서 찾아

Corresponding author: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eunsook@ulsan.ac.kr

볼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요소를 파악하고 시대흐름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등이 있다. 이미연, 박민여(2007)는 맥시멀리즘을 21세기에 등장한 기존의 패션 테크닉에서 벗어난 외래적인 패션 혹은 새로운 의상으로 이미지를 구분하여 패션트렌드의 한 부분으로 그것이 표현된 방법을 연구하였고, 박은경(2008)과 변혜진(2007)은 21세기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을 스타일별로 유형화하거나 작품에 표현된 특징과 스타일을 혼합하여 유형화를 시켰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었으나 맥시멀리즘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특징을 유형화한 내용분석 연구는 미흡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복합적 요소로 조합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유형화된 특징들이 디자인상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국·내외 컬렉션을 통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의 예술사조는 시대에 따라 표현양식이나 방법이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유행하였던 예술사조가 향후 재등장할 경우 과거의 표현법의 모방이 아니라 그 시기의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진 표현시도가 필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행된 방법은 맥시멀리즘의 특징과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패션특징을 참고로 4항목, 즉 확대과장성, 장식성, 혼합성, 비구조성으로 명명하였고, 문헌, 어패럴신문, 인

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디자인 표현성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2005 S/S~2010 S/S의 국내 패션컬렉션과 국외 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작품분석이 이루어졌다. 파리컬렉션은 오랜 패션의 역사와 함께 여러 컬렉션의 모태로서 현대패션의 시초를 잡았으며 기성복을 현대 대중패션으로 정착시킨 점과 전 세계 패션트렌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범위인 2005년~2010년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이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온 시기로 판단되었고 서울패션위크(www.seoulfashionweek.org)와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스타일닷컴(www.style.co.kr), 퍼스트뷰(www.firstview.com), 퍼스트뷰 코리아(www.firstviewkorea.com), 보그(www.vogue.co.uk)에서 600여장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컬렉션 작품사진 600여장들 중에서 맥시멀리즘의 표현적 특징을 유형화한 4항목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2차 작품사진 선별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국내·외 컬렉션 사진들 중에서 맥시멀리즘 표현유형에 해당되는 사진들 중에서 각각 3작품 총 12작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2010년 3월 의류학 전공 30명의 학생들에게 5점 Likert척도로 12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한 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796으로 나타나 위의 작품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컬렉션 사진 154장과 국외 컬렉션 사진 230장이 최종 선별되었다.

Table 1. 년대별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표현유형 작품수

표현유형		국내						N	국외						N	
		05	06	07	08	09	10		05	06	07	08	09	10		
확대 과장성	상반신	S/S	3			5	9	22	2	3	1	4		1	30	
		F/W	2	1		2				3	5	7	4			
	하반신	S/S			2		4	8	3		6	5		1	22	
		F/W				2					6		1			
	상 · 하반신	S/S						2	20	3	2	4	6	5	2	48
		F/W		7		5	6			1	3	6	6	10		
장식성	장식선	S/S		3	3		2	1	15	1	1		3		16	
		F/W		4			2					3	3	5		
	장신구 · 소품 부착	S/S		6		7		5	39	5		2	2	4	5	35
		F/W		8	4	9				4	2	4	1	6		
	혼합성	아이템	S/S				1			7	4			2		7
			F/W	3	2		1						1			
문양		S/S					2	2	12	2	3	3	1	2	2	21
		F/W	3			2	3					4	1	3		
성		S/S						3	9				5		9	
		F/W		2	2		2					4				
비구조성	외형적 실루엣	S/S							5	1		2	4	2	7	32
		F/W	1		4						1	7	2	6		
	실루엣 내	S/S				2		7	1	3	2		2		2	10
		F/W	3			1	4						1			
	N		12	36	15	32	26	33	154	29	20	57	56	48	20	230

(Table 1).

2. 맥시멀리즘의 개념 및 유형

2.1. 맥시멀리즘의 개념

맥시멀리즘은 맥시멀(maximal)에 ism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최대주의, 최대지향주의, 극대주의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선화, 2008). 맥시멀리즘은 문학에서는 ‘빅 북’이나 ‘토틸 소설’ 또는 ‘메가 소설’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백과사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같은 이미지의 반복적 대량생산과 대중적 이미지를 복사,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에 의한 강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에서는 상이한 양식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육중함, 풍만함, 다양함, 화려함, 역동적 효과, 과도함의 추구경향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1960년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Christian Lacroix가 맥시멀리즘적 패션은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이국적인 패션이다(정선화, 2008)라고 언급한 이후 단순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의 개념과는 반하여 사용되어졌다. 변혜진(2007)은 다양한 요소의 혼합을 추구하는 의복스타일과 복고적인 성향이 반영된 모든 디테일과 과장된 장식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장식적 특성이라 하였고, 박성운(2006)은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화려함의 새로운 의미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대표적인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유희성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천에 기초를 두고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비형식적인 스타일, 왜곡성, 변형성, 과장성, 상반된 특징을 가진 요소의 혼합에서 오는 복잡함 등을 매치시키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상에서처럼 여러 분야에서 언급된 맥시멀리즘은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화려함과 변형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결합된 다양함과 복잡함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 경향에 의한 불균형과 왜곡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2. 맥시멀리즘의 유형

21세기는 ‘나’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라이프스타일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이전보다 차별적이고 독특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발상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성과 변화를 찬미하는 미학적 경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맥시멀리즘의 궁극적 심미성은 과장, 복잡, 화려, 다양, 섬세, 혼합 등으로 각각 표현되거나 서로 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김연화(2005)는 맥시멀리즘이 반영된 패션 스타일의 특징은 대담한 꽃무늬와 페이즐리 무늬, 구슬이나 깃털 장식 등 화려하

고 장식성이 많은 것과 호화롭고 섬세한 디자인,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과 디테일이 두드러지며, 과장되거나 비구조적인 실루엣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정연(2006)은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요소들은 여러 정체성의 통합적 양산으로 나타나는 다문화, 서로 다른 요소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믹스 앤 매치, 극단적 율리현상과 극대화로 인한 변형, 순환과 반복적 트렌드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감수성의 4가지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호정(2005)은 맥시멀리즘 패션은 다문화주의 영향과 다양한 의식의 변화로 생겨난 복식의 형태이며 신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조형적, 유희적 의미를 띠었다고 했다. 또한 맥시멀리즘 스타일은 옛 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스타일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로 표현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명은정(2005)은 강렬한 힘으로 분출하는 모든 미적 경향이 그러하듯이 맥시멀리즘 역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첨단을 달리던 패션 디자인은 맥시멀리즘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영역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에서도 맥시멀리즘이 나타나는데, 과잉성과 풍부함, 웅장함 전통 및 고급문화를 존중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성, 신바로크 경향, 민족적 요소 활용 등이 그 예라고 하였다.

변혜진(2007)은 맥시멀리즘이 반영된 의상 스타일의 특징은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옛 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로맨틱, 스캔글이나 비즈 등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글리터링, 과도한 금속장식에 미래적인 느낌이 가미된 퓨처리즘 스타일등과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고, 디테일이 두드러지며, 과장되거나 비구조적인 실루엣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신현숙(2001)은 맥시멀리즘을 포스트모더니즘이 반영된 패션 트렌드로 설명하였으며, 맥시멀리즘이 반영된 의상 스타일의 특징은 대담한 꽃문양과 페이즐리 문양, 술 장식, 깃털 장식 등의 히피 록과 글램 록 스타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이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고, 디테일이 두드러지며 과장되거나 비구조적인 실루엣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연, 박민여(2007)는 맥시멀리즘은 의복의 여러 요소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맥시멀리즘의 스타일로서 과장된 장식성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엘레강스 스타일, 화려한 색시함을 추구하는 글래머 스타일, 전통과 레트로 스타일, 바로크와 로코코 요소를 재배치한 낭만주의적 신바로크 스타일, 보보스 스타일, 키치 스타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글래머, 과장, 과잉성 등이 주는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표현

하는 유형은 ‘확대과장성’으로, 퓨처리즘, 키치, 글리터링, 글램 룩, 히피룩에서 나타나는 기괴함, 화려함, 강조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장식성’으로, 복고, 로맨틱히피룩, 민족적 스타일, 레트로 스타일이 주는 다양성, 복잡성, 독특성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혼합성’으로, 비대칭과 비구조적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운동감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비구조성’으로 명명하여 이러한 유형들의 디자인적 표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확대과장성

확대란 ‘늘려 크게 함’(에센스 국어사전, 2001)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나타냄을 뜻하며, 복식에 있어서 확대는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되고 넓이와 길이의 착시를 의미하며,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의 느낌이나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3.2. 장식성

장식성은 의복의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의복의 분위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디테일선의 변화, 장식품을 덧붙여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화려함, 호화로움, 강조 등의 느낌이나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3.3. 혼합성

혼합성은 두 가지이상의 요소들이 각각 특성을 지닌 채 서로 대비되면서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특성을 의미하며, 다양함, 복잡함, 독특함 등의 느낌이나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3.4. 비구조성

비구조성은 좌우의 무게감을 다르게 처리하거나 구조적 디자인이나 실루엣을 의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왜곡성, 운동감, 성숙함, 여성스러운 등의 느낌이나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Table 2. 맥시멀리즘의 특징 및 패션특징

맥시멀리즘의 특징		패션 특징
김연화 (2005)	- 인간의 근원적 감성에 충실 -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 - 의복 내의 여러 요소가 표현적으로 디자인에 활용	- 히피룩, - 글램룩, - 에스닉 스타일, - 과장 스타일, - 비구조적 스타일
김정연 (2006)	- 희망과 평화로움을 공유하는 맥시멀리즘 조형성 형성	- 민속 스타일, - 과거 지향적 복고 스타일, - 로맨틱 히피 룩
김호정 (2005)	- 다문화주의 영향으로 다양한 의식의 변화 발생 - 신체를 무시하거나 왜곡적 표현 - 조형적, 유희적 상징성 추구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의 혼합	- 복고 스타일, - 에스닉 스타일, - 부조화 스타일
명은정 (2005)	- 미니멀리즘이 주장하는 형식이 갖고 있는 통일성 및 표준화에 대한 개인적 반향 - 옷과 장식의 과잉성을 추구하는 미학	- 과잉성, - 풍부함, - 신바르크 스타일, - 민족적 스타일
변혜진 (2007)	- 자유로운 사고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추구 - 다양성과 많음을 찬미하는 미학적 경향 - 밝고 화려한 이미지	- 에스닉 스타일, - 복고 스타일, - 로맨틱 스타일, - 글리터링 스타일, - 퓨처리즘 스타일
신현숙 (2001)	-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 - 감정을 반영한 다양한 스타일 수용	- 히피룩, - 글램룩, - 에스닉 스타일, - 과장 스타일, - 비구조적 스타일
이미연, 박민여 (2007)	-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 - 화려함과 섹시함 - 고급스러움과 재미와 추구 - 과잉성과 여러 요소와 이미지의 믹스로 풍부함 표현 - 최대한으로 장식	- 엘레강스 스타일, - 글래머 스타일, - 레트로 스타일, - 낭만주의적 신바르크 스타일, - 보보스 스타일, - 키치 스타일

3. 맥시멀리즘적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3.1. 확대과장성

확대과장성은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의 추구경향이 강한 특징을 지니며, 그 표현의 위치는 목, 어깨를 중심으로 한 상반신확대과장,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한 하반신확대과장, 상·하반신확대과장을 분류될 수 있다(Table 3).

상반신 확대과장의 경우, 어깨과장에서는 둥근 형과 각진 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양어깨를 부피감보다는 납작하게 만든 넓이의 확대를 강조하였고<Table 3(a)>, 문영희의 08F/W컬렉션<Table 3(b)>은 목의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할 정도의 중압감을 느끼게 한 16세기 위스크 칼라(whisk collar)를 연상케 하는 칼라로, 과장된 표현이 얼굴과 신체를 분리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임선옥의 10S/S컬렉션<Table 3(c)>에서는 17세기 폴링 칼라(falling collar)를 연상시킬 정도로 목의 움직임을 부

자연스럽게 할 만큼 칼라 세움분을 높게 한 과장성을 찾을 수 있다. Comme Des Garçons의 06S/S컬렉션<Table 3(d)>는 양 어깨의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팽팽한 부피감을 이용한 확대과장성이 나타났으며 둥그스레한 양어깨를 강조하기 위하여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소매형이 사용되었고, 한편으로는 어깨끝부분을 각을 줘서 복고, 여전사의 느낌이 표현되는 파워 숄더(power shoulder)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상반신 확대과장성과 관련된 작품은 국내 22장과 국외 30장 중에서 목 부위는 5장, 어깨부위는 47장으로 목 부위보다는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기능적이고 실용적 과장이기 보다는 유희와 재미 또는 중압감과 위압감이 두드러진 인위적 과장성이 돋보였다.

하반신 확대과장의 경우, 무릎 위는 험렁하고 밑은 꼭 끼는 조드퍼즈 팬츠(jodhpurs pants)로 양쪽의 골반을 과장시켜 힙 라인을 부각시키거나<Table 3(e)>, 하이웨이스의 별론형 스타

Table 3. 확대과장성

		국내				국외		
상 반 신
		a	b	c	d			
		08F/W	08F/W	10S/S	06S/S			
		이상봉	문영희	임선옥	Comme Des Garçons			
확 대 과 장 성	하 반 신
		e	f	g	h	i	j	
		08F/W	08F/W	10S/S	07S/S	07F/W	08S/S	
		양성숙	곽현주	정훈중	Alexander McQueen	Hussein Chalayan	Yohji Yamamoto	
		상 · 하 반 신
			k	l	m	n		
05F/W	05F/W		06S/S	09F/W				
이상봉	지춘희		Sonia Rykiel	John Galliano				

일을 이용한 힙의 확대를 강조하거나<Table 3(f)>, 불투명과 투명 소재를 겹쳐 입음으로써 부피감을 주는 동시에 드레스 밑단부분을 개더나 주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둥근 모양의 배럴스커트로 무릎이하 하반신부분을 확대과장으로 표현한 방법<Table 3(g)>이 이용되었다. 또한 슬림한 의상의 양쪽 골반에 딱딱한 패드를 부착시킨 듯 한 부풀림을 이용한 확대법과 양쪽 가슴의 원형크기와 양쪽 골반의 원형크기의 차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힙 부분이 확대되어 보이는 넓이의 착시효과를 혼합한 확대과장성<Table 3(h)>이 나타났고 <Table 3(i)>는 의복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구들을 응용한 작품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제트 비행기형을 스커트로 디자인하여 딱딱한 고체적 형으로 힙을 확대시킨 방법, 18세기 로브 아라 폴로네즈(robe a la polonoise)를 연상케 하는 벌룬 스커트형으로 하반신 전체를 확대과장시킨 방법<Table 3(j)> 등이 활용되었다.

하반신 확대과장성은 국내 8장과 국외 22장 중 힙 확대과장성은 20장, 벌룬형을 이용한 하반신 전체의 확대과장성은 10장이고 힙의 부각은 양쪽 골반을 확대하는 방법이 이용되었고 벌룬형을 이용한 확대과장 경우에는 스커트의 밑단에 개더나 주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림을 주거나 두껍고 뽕뽕한 소재 또는 소재의 겹침을 이용한 하반신 전체를 부풀리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상·하반신 확대과장의 경우, 이상봉의 05F/W컬렉션<Table 3(k)>은 칼라, 소매, 허리의 조임 정도의 상관성이 두드러졌는데, 과장되고 넓은 폴링 칼라, 지고 슬리브(gigot sleeves)로 상반신을 확대과장 하였고, 허리를 조인 A라인 플레어스커트로

하반신을 더욱 풍성한 이미지로 나타냈으며, 지춘희의 05F/W컬렉션<Table 3(l)>는 실제 인체에 비해 크게 보이는 빅 룩(Big look)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상·하반신을 박시형 실루엣으로 확대과장성을 나타내었다. Sonia Rykiel의 06S/S컬렉션<Table 3(m)> 역시 어깨를 둥그스름하게 한 박시형 실루엣으로 풍성한 확대과장성을 나타내었다. John Galiano의 09F/W컬렉션<Table 3(n)>는 A라인 실루엣을 이용한 확대과장성을 나타내었다.

상·하반신 확대과장성은 국내 20장과 국외 48장 중 레이어드 빅 룩과 전체 벌룬형의 확대과장성은 25장, 어깨과장과 스커트의 확대성은 32장, 기타 장식에 의한 확대성 11장으로써 레이어드 빅 룩의 경우 3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을 겹쳐 입는 방법을, 어깨 과장과 스커트의 확대는 웨이스트라인을 조임으로써 상·하반신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국내에서는 전체적인 신체 확대과장이 선호되었으며, 국외는 어깨와 힙라인을 연결한 신체 구간부의 확대, 과장,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는 브리콜라지들을 첨가하여 인위적이고 조형적이며 독특함과 기이함의 유희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을 이용한 확대과장적 이미지가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장식성

장식성은 길이, 넓이, 부피의 착시효과에 초점을 두며 의복의 구조선, 기능성, 실용성과는 상관없이 장식선에 의한 장식(31장), 장식구 부착이나 소품을 통한 장식(74장)으로 분류될

Table 4. 장식성

		국내			국외		
장식성	장식선	<p>a</p> <p>06F/W 미치코코시노</p>	<p>b</p> <p>10S/S 이영희</p>	<p>c</p> <p>10S/S 임선옥</p>	<p>d</p> <p>09F/W Alexander McQueen</p>	<p>e</p> <p>09F/W Alexander McQueen</p>	
	장식구 · 소품부착	<p>f</p> <p>07F/W 에브노말</p>	<p>g</p> <p>06F/W 홍은주</p>	<p>h</p> <p>06F/W 박춘무</p>	<p>i</p> <p>05F/W Viktor & Rolf</p>	<p>j</p> <p>08F/W Christian Lacroix</p>	<p>k</p> <p>09F/W Alexander McQueen</p>

수 있다(Table 4). 장식선에 의한 장식성의 경우, 오리가미를 이용한 듯 한 수평선과 사선의 조합은 딱딱하며 무게감 있는 이미지의 장식성이 강하고 <Table 4(a)> '보다 더 길게'의 과장된 길이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장식성<Table 4(b)>, 수평적 위치에 원 문양을 이용하여 가슴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다소 유머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장식성<Table 4(c)>을 볼 수 있다. Alexander McQueen의 09S/S컬렉션<Table 4(d)>은 타원형과 곡선에 검은 색으로 장식선을 둘러 엠보싱의 효과를 느끼게 하는 장식성을 볼 수 있다. <Table 4(e)>는 직선과 방향을 달리 한 사선을 이용하여 선의 혼합으로 인한 복잡성과 호화스러운 이미지의 장식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식선에 의한 장식성(국내 15장, 국외 16장)은 길이, 면적(부피)의 착시적 효과를 보여주었고 두 종류이상의 선의 혼합은 복잡함을 이용한 화려함을 느끼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신구 소품의 부착을 통한 장식성일 경우, 에브노말의 07F/

W컬렉션<Table 4(f)>는 과장된 넥타이를 이용하여 길이와 넓이의 이중적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홍은주의 06F/W컬렉션<Table 4(g)>는 좌우비대칭 코트의 어깨에 모피(fur)를 부착 시킴으로써 볼륨감을 느끼게 하는 장식성을 보였다. 박춘무의 06F/W컬렉션<Table 4(h)>는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여 수직적 드레이프의 긴 코트위에 수평적 드레이프 스카프를 매치하여 풍성하고 부피감을 느끼게 하는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Viktor & Rolf의 05F/W컬렉션<Table 4(i)>는 침구의 모티프를 전체 의복의 형태에 적용하여 마치 이불 속에 여성이 누워있는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여 입체적인 볼륨감을 표현하였고 Christian Lacroix의 08F/W컬렉션<Table 4(j)>는 코르셋과 스커트 버팀대를 연상케 함으로써 여성인체 곡선을 보다 강조한 장식적 연출을 보였다. Alexander McQueen의 09F/W컬렉션<Table 4(k)>는 새장을 연상케 하는 장신구를 머리에 씌으로써 의복전체의 이미지와는 부조화를 나타내는 과잉장식을 보여주

Table 5. 혼합성

		국내			국외		
아이 템
		a 05F/W 이분희	b 06F/W 허하나	c 08S/S 한 송	d 05S/S Comme Des Garçons	e 05S/S Undercover	f 08S/S Comme Des Garçons
혼 합 성	문 양
		g 05F/W 최연옥	h 10S/S 최복호		i 07F/W Kenzo	j 09S/S Viktor & Rolf	
성
					k 07F/W Comme Des Garçons	l 08S/S Yohji Yamamoto	m 07F/W Comme Des Garçons

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장신구 부착이나 소품을 통한 장식성(국내 39장, 국외 35장)은 의상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장식보다는 다른 용도의 아이템이나 기괴한 디자인 발상을 통하여 재미와 유희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과잉장식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국내는 사실적인 표현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아이템들을 과장, 강조함으로써 기능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장식성을 보인 반면, 국외에서는 다른 용도의 소재들을 이용하여 추상적이고 독특함이 강조된 장식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3. 혼합성

혼합성은 겹쳐 입은 듯한 느낌, 서로 이질적인 직물의 혼합 등이 주는 이미지 효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표현기법의 경우, 아이템의 혼합성(14장), 문양의 혼합성(33장), 성의 혼합성(18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Table 5).

아이템의 혼합성인 경우, 겹옷과 속옷을 바꿔 입는 반대법에 의한 착장법으로 두꺼운 소재를 속옷으로, 얇은 소재를 겹옷으로 활용한 혼합성<Table 5(a)>, 흰색의 셔츠를 스커트위에 부착시킨 아이템 혼합을 이용한 레이어드룩 연출<Table 5(b)>과 스커트와 팬츠를 동시에 착용하여 스커트와 팬츠가 주는 서로 다른 움직임의 선의 혼합성<Table 5(c)>, 남성적인 슈트와 반바지 위에 스티브(stiff)적인 레이스가 과하게 달린 미니스커트를 조화시킨 레이어드룩<Table 5(d)>이 연출되었다. 스커트와 팬츠를 동시에 착용하여 스커트와 팬츠가 주는 서로 다른 움직임의 선의 혼합성<Table 5(d)>이 활용되었다. <Table 5(e)>는

재킷의 포켓 속에서 또 다른 셔츠와 블라우스를 보임으로써 한 메인 아이템 속에 여러 아이템이 속출되는 혼합성을 보여주었고 <Table 5(f)>는 스커트의 좌우에 남성용 재킷과 여성용 러플 스커트를 함께 조화시킴으로써 다른 아이템에 의한 혼합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아이템에 의한 혼합성은 반대법을 이용하여 겹옷을 속옷으로, 상의용을 하의용으로, 서로 이질적인 아이템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룩 연출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혼합성일 경우, 상·하, 좌·우의 문양을 서로 상반되게 배치하거나<Table 5(g)>, <Table 5(h)>처럼 상의의 에스닉한 사라사 패턴(Sarasa Pattern)과 스커트의 체크무늬의 혼합성이 보였다. Kenzo의 07F/W컬렉션<Table 5(i)>과 Viktor & Rolf의 09S/S컬렉션<Table 5(j)>은 한 아이템 내에서 상반된 이질적인 문양을 매치시킴으로써 복잡성을 부각시켰다.

문양에 의한 혼합성은 한 아이템 자체 내에 혹은 상·하의 아이템간의 이질적인 문양의 혼합성을 보임으로써 복잡함과 부피감을 느끼게 하는 착시적 효과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성의 혼합성일 경우, Comme Des Garçons의 07F/W컬렉션<Table 5(k)>과 Yohji Yamamoto의 08S/S컬렉션<Table 5(l)>은 좌우측의 보는 시각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성의 양면성을 혼합하였으며, 남성용 재킷 앞면에 여성복을 결합시켜 이질적인 성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결합을 연출하였다<Table 5(m)>.

성에 의한 혼합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좌·우, 앞·뒤에 서로 다른 성을 상징하는 기본 아이템들

Table 6. 비구조성

		국내			국외		
비구조성	외형적 실루엣
		a 05F/W 이상봉	b 10S/S 양성숙	c 10S/S 양성숙	d 09F/W Ann Demeulemeester	e 10S/S Viktor & Rolf	f 10S/S Viktor & Rolf
실루엣
		g 10S/S 유현진	h 07F/W 에브노말		i 08S/S Yohji Yamamoto	j 10S/S Viktor & Rolf	k 10S/S Viktor & Rolf

을 동시에 연출하는 혼합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혼합성은 모두 상반된 특성을 이용한 직물의 혼합과 이질적인 성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결합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4. 비구조성

비구조성은 좌우의 무게감을 다르게 처리하거나 구조적 디자인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표현기법의 경우, 외형적 실루엣에 의한 비구조성<37장>, 실루엣 내의 비구조성<27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Table 6).

외형적 실루엣에 의한 비구조성의 경우, 이상봉의 05F/W컬렉션<Table 6(a)>은 구성선의 부조화로써 앞여밈선과 비대칭 소매구성을, 양성숙의 10S/S컬렉션<Table 6(b, c)>은 비대칭적인 소매를 이용하였다. Ann Demeulemeester의 09F/W컬렉션<Table 6(d)>은 겹겹이 입은 듯 한 아방가르드적 느낌이 강한 불규칙적이고 비구조적인 스커트 햄라인이 돋보였으며, Viktor & Rolf의 10S/S컬렉션<Table 6(e)>은 드레스 하의부분에 군데 군데 드러난 컷팅의 비구조성을 보였고, 동일 디자이너의 작품인 <Table 6(f)>는 원피스 윗부분을 오른쪽으로 비틀고 아랫부분을 왼쪽으로 비틀어 놓은 듯한 비구조성을 연출하였다. 실루엣 내의 비구조성의 경우, 유현진의 10S/S컬렉션<Table 6(g)>은 비대칭적인 네크라인을, 에브노말의 07F/W컬렉션<Table 6(h)>은 사선을 이용한 비대칭 여밈을 보였다. Yohji Yamamoto의 08S/S컬렉션<Table 6(i)>은 상하좌우 비대칭으로 정형화된 실루엣을 찾아볼 수 없는 아방가르드한 형태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실루엣을, Viktor & Rolf의 10S/S컬렉션<Table 6(j, k)>은 스커트의 한쪽 부위를 한쪽 어깨로 연결한 파괴적인 실루엣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비구조성 모두 패턴구성에 의한 외형적 실루엣이 주는 비대칭성과 장식이나 디테일, 여밈의 방향 등을 이용한 실루엣 내에서의 비구조성의 표현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현대는 대량물질 문명과 지구촌의 세계화, 21세기에 대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현대인의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 예술의 혼합과 절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맥시멀리즘은 다문화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션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이다. '어울리기'에 반대하여 종종 아이러니한 효과나 패러디의 효과를 위해 즉흥적으로 서로 양립되지 않거나 이질적인 단편들을 병치시키거나 또는 특별히 브리콜라지(bricolage)의 양식을 사용하는 수법이 어울려진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의 특징을 확대과장성, 혼합성, 비구조성 인 4가지로 유형화하여 패션디자인의 표현성을 살펴

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대과장성은 맥시멀리즘의 표현유형 작품 중 작품수가 많았으며 이를 통하여 크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확대과장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확대과장성은 2005년부터 꾸준한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고, S/S시즌보다 F/W시즌에 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신체 특정부분의 확대과장 또는 보다 인위적이거나 유희적이며 재미를 가하는 확대과장적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신체 확대과장이 선호되었다. 이는 국내의 컬렉션에 나온 작품들은 곧 상품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내의 디자이너들은 위험요소를 부담하면서까지 유희와 재미를 추구하는 의복을 만들기에는 아직 우리 국내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동양인의 체형에는 부분적 확대과장이 다소 부담스런 디자인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반면 국외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부분적인 실루엣의 확대과장을 통하여 어깨와 힙라인을 연결한 신체 구간부의 확대, 과장,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는 브리콜라지들을 첨가하여 인위적이고 조형적이며 독특함과 기이함의 유희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의복이라기보다는 아트적인 확대과장적 이미지가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의 장식성은 소재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실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흔한 아이템들을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길게' 과장, 강조됨을 보여주어 의복의 길이나 주름의 효과로 장식성을 추구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장식성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소재들을 이용한 장식성, 우세와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식성이 나타나 추상적이고 독특함이 강조된 장식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외간의 장식성 표현은 한 사회의 취향이나 정서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내외 혼합성은 모두 상반된 특성을 이용한 직물의 혼합이 특히 두드러졌다. 즉 무광택과 광택, 두꺼움과 얇음, 직물표면의 털이 있음과 없음, 무늬의 유무 등의 상반된 특성을 가진 직물을 이용하거나 딱딱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의 이질적인 재질 구성을 이용한 혼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질적인 성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결합의 혼합성은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 따른 패션의 파괴를 보여주어 독특한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국내의 비구조성 모두 패턴구성에 의한 외형적 실루엣이 주는 비대칭성으로 상하좌우 정형화된 실루엣을 찾아볼 수 없는 아방가르드한 형태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실루엣의 비구조성이 나타났다. 실루엣 내에서의 비구조성은 장식이나 디테일, 여밈의 방향 등을 이용한 표현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인하여 색채 및 소재와 관련된 분석이 제외된 점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실제 소비자가 착용하는 기성복을 대상으로 예측되는 트

렌드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연화. (2005). *한국의 꽃무늬를 이용한 섬유작품 제작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 (2006).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 (2005). *과장형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명은정. (2005). *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낮설게 하기'의 현 대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운. (2006). *21C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복고적 성향*.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3), 1-18.
- 변해진. (2007). *21세기 맥시멀 룩(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컬렉션. (2005). 2005 F/W, Ready-to-Wear, Seoul, Choi Yeon Ok, Gee Chun Hee, Lee Moon Hee, Lee Sang Bong. *SEOUL FASHION WEEK*. 자료검색일 2008, 9. 12, 자료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 서울컬렉션. (2006). 2006 F/W, Ready-to-Wear, Seoul, Heo Ha Na, Hong En Zu, Michiko Koshino, Park Chun Moo. *SEOUL FASHION WEEK*. 자료검색일 2008, 9. 12, 자료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 서울컬렉션. (2007). 2007 F/W, Ready-to-Wear, Seoul, Habenormal, Han Song. *SEOUL FASHION WEEK*. 자료검색일 2008, 9. 12, 자료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 서울컬렉션. (2008). 2008 F/W, Ready-to-Wear, Seoul, Lee Sang Bong, Moon Young Hee, Yang Sung. *SEOUL FASHION WEEK*. 자료검색일 2008, 9. 12, 자료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 서울컬렉션. (2009). 2010 S/S, Ready-to-Wear, Seoul, Choi BoKo, Jung Hun Jong, Lee Young Hee, Im Sun Ok, Yang Sung, Yu Hyun Jin. *SEOUL FASHION WEEK*. 자료검색일 2009, 12. 2, 자료출처 <http://www.seoulfashionweek.org>
- 스타일닷컴. (2007). 2007 F/W, Ready-to-Wear, Paris, Comme des Garçons. *STYLE. COM*. 자료검색일 2008, 9. 7,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스타일닷컴. (2007). 2008 S/S, Ready-to-Wear, Paris, Yohji Yamamoto. *STYLE. COM*. 자료검색일 2008, 9. 7,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신현숙. (2001). *패션 트렌드에 대한 국내 여성 소비자의 수용 현황과 수요 분석: 1998-2001년 트렌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 박민여. (2007). *이국적 이미지 상품의 스타일 특성; 2001년~2006년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7(6), 46-61.
- 인터패션플레닝. (2007). 2007 F/W, Ready-to-Wear, Paris, Hussein Chalayan, Kenzo. *IFP*. 자료검색일 2008, 9. 7, 자료출처 <http://www.ifp.co.kr>
- 인터패션플레닝. (2008). 2008 F/W, Paris, Ready-to-Wear, Christian Lacroix. *IFP*. 자료검색일 2008, 9. 7, 자료출처 <http://www.ifp.co.kr>
- 에센스 국어사전. (2001). 서울: 민중서림.
- 정선화. (2008). *컬렉션과 내셔널브랜드제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퍼스트뷰코리아. (2005). 2005 F/W, Ready-to-Wear, Paris, Viktor & Rolf.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8, 9. 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5). 2006 S/S, Ready-to-Wear, Paris, Comme des Garçons.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8, 9. 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6). 2007 S/S, Ready-to-Wear, Paris, Alexander McQueen.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8, 9. 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7). 2008 S/S, Ready-to-Wear, Paris, Comme des Garçons. Yohji Yamamoto.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8, 9. 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8). 2009 S/S, Ready-to-Wear, Paris, Viktor & Rolf.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9, 11. 2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9). 2009 F/W, Ready-to-Wear, Paris, Alexander McQueen, Ann Demeulemeester, John Galiano.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9, 11. 2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 퍼스트뷰코리아. (2009). 2010 S/S, Ready-to-Wear, Paris, Viktor & Rolf. *FIRST VIEW KOREA*. 자료검색일 2009, 11. 2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2010년 7월 2일 접수/2010년 9월 10일 1차 수정/
2010년 10월 13일 2차 수정/2010년 10월 13일 게재확정)